

‘자사주 소각 의무화’ 촉각… 신영·대신증권 등 투자자 관심

李 대통령, 후보 시절 제도화 언급
자사주 비중 높은기업 주가 상승
일각선 중장기 경쟁력 약화 우려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함께 ‘자사주 소각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자사주 소각 시 세제 인센티브 부여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의 표정은 어둡다. 경영권 분쟁 발생 시 더는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투자자들은 환호한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유통주식 수가 줄게 돼 기존 주주들이 보유 중인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자사주 소각하다가 투자·M&A 뒷전 밀리나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영증권의 자사주 보유 비중은 51.28%로 국내 상장사 중 가장 높다. 부국증권도 자사주 비중이 42.73% 나 된다.



대신증권 전경

일반 기업 가운데는 롯데지주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32.51%에 달한다. 대신증권(25.17%), SK(24.80%), 두산(18.2%) 등도 자사주 비중이 높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중견기업들도 있다. 조광피혁은 자사주 비율이 46.57%에 달한다. 텔코웨어(44.11%), 엘엠에스(34.97%), 대한방직(31.84%), 샘표(29.90%), 모토닉(22.90%) 등은 자사주 비중이 20~40%대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불편하다.

기업들의 가장 큰 걱정은 경영권이



신영증권 전경

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대주주들이 자기주식(자사주)을 활용해 지배력을 편법으로 강화하는 통로가 막히게 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경영권 보호 수단이 사실상 자사주 하나밖에 없는데, 기업들이 적법한 수단을 이용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 이를 ‘악용’한다고 보는 것은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과도한 자금을 투입할 경우 기업 경쟁력 약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대규모 자사주 소

각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뒷걸음질 친 바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주주환원도 중요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중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이나 인수합병(M&A) 등에도 자금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가는 경풍

개미들은 환호한다. 신영증권은 올해 증권사 분석 보고서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이 대통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거론한 4월 21일 이후 주가가 57.14% 가까이 뛰었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부국증권(61.82%), 대신증권(43.24%), 미래에셋증권(89.57%) 등도 같은 기간 상승세다.

롯데지주는 이 후보 발언 이후 이날까지 주가가 46.34% 올랐다. SK와 두산도 각각 49.36%, 90.29% 상승했다.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물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늘리면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은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은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이기 때문에 경영권 사용하는 것은 본래 취지와 괴리가 발생한다”며 “자사주 매입은 소각으로 연결돼야만 주가 부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자사주 보유비중이 큰 상장회사에 대해 주주환원 측면에서 주주들의 자사주 소각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향후 자사주 처리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에 함께 공시하게 되면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견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자사주 비중이 약 25% 수준인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선제적으로 대규모 소각에 나섰다. 미래에셋증권은 주주환원 확대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 주면서 ‘밸류업 모범생’으로 꼽힌다. 2030년까지 자사주 1억주를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밸류업 공시 이후 현재까지 총 2750만주(약 2203억원)를 소각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스크린 위 펼쳐진 숲… “나만의 씨앗’ 심어요” “급등주 증정’ 등 미끼 키워드 주의해야”

르포

두나무 ‘디지털 치유정원’

디지털 기술 기반 자연체험 공간
시드볼트 NFT로 식물보전 활동

초여름 햇살이 내리쬐는 서울 보라매 공원. 생소한 파란색·흰색 컨테이너 두 동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선다. 그 안에 펼쳐질 건 다름 아닌 ‘숲’이다. 나무도 흙도 없지만, 향기와 새소리, 눈 덮인 겨울 풍경까지 갖춘 이곳은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가상 정원’이 펼쳐졌다.

핀테크 기업 두나무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선보인 ‘디지털 치유정원’은 미디어 파사드와 NFT, 그리고 실제 식물 보전 활동까지 연결된 새로운 형태의 자연 체험 공간이다. ‘기술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가상 정원은 도심 한복판에 또 하나의 숲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두나무가 조성한 ‘디지털 치유정원’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일환으로 보라매공원에 마련된 몰입형 전시 공간이다. 날씨·소리·영상이 어우러



보라매 공원에 마련된 ‘두나무 치유의 정원’에서 미디어파사드를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들

진 미디어 파사드 형태로, ‘고요한 숲’, ‘따뜻한 숲’, ‘숨 쉬는 숲’이라는 세 가지 테마가 3분 40초간 순차적으로 상영된다. 계절별 숲의 풍경에 맞춰 온도와 향기까지 조정돼, 관람객은 마치 설악산 겨울 능선을 걷는 듯한 몰입감을 경험한다.

실내 정원에 들어서기 전, 관람객들은 옆 컨테이너에서 ‘씨앗을 심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참석자들은 치유정원 입장을 기다리며 몇가지 질문에 답하며 ‘나만의 치유 씨앗’을 찾게 되는데,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신의 ‘꽃’을 찾는데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설문을 마치면 배초향, 물레나물, 시무나무 중 하나의 꽃을 수령한다. 이들은 모두 멸종위기종으로 참석자들은 ‘자신의 씨앗 키트’를 실제로 얻은 뒤 QR코드를 통해 앱티브 앱에서 ‘시드볼트 NFT’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시드볼트 NFT 프로젝트는 단순한 디지털 수집을 넘어 실제 식물 보전 활동과도 연결된다. 시즌 1과 2에는 약 2

만6000명이 참여했고, 그 결과 신규대학교 식물원과 부산에 각각 587㎡, 1130㎡ 규모의 보전지가 조성됐다. 이번 전시가 끝나면 보라매공원 전시 부지에도 실제 자생식물이 심겨질 예정이다.

자녀와 ‘치유의 정원’을 찾은 한 관객은 “실제로 식재가 된다고 하니 나무를 심은 것 같아 신기하다”며 “NFT의 개념은 아직 생소하지만 취지가 좋아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 치유정원은 오는 10월 20일까지 운영된다. 이후 전시 공간은 해체돼 국립정원문화원으로 이전되며, 보라매공원 현장에는 세 번째 보전지가 마련된다. 기술이 만든 이 숲은, 그저 가상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일상에 지친 이들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함께하는 디지털 치유정원에서 따뜻한 위로를 얻기를 바란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세상의 이로운 기술과 힘이 되는 금융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감원 Q&A

불법 가상자산 사기

최근 SNS에서는 소비자가 방심하기 쉬운 키워드를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진짜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시켜 투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확산 중입니다.

사기범들은 먼저 ‘급등주 무료 증정’이라는 미끼로 카카오톡 단체방 입장을 유도합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팅방이나 자체 제작 웹사이트에서는 ‘무료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현금이나 진짜 코인으로 지급하는 등 신뢰를 쌓은 후 진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합니다. 이후 ‘출금 수수료’, ‘계정 업그레이드 비용’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며, 이 과정에서 투자금을 편취한 뒤 잠적합니다.

최근에는 가짜 증명서, 허위 기사 유

포 등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급등주’, ‘출석지원금’, ‘재테크 강의’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접근할 경우, 투자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진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거래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명의 계좌로는 어떠한 송금도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문자메시지·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신속히 제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정윤 기자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씨앗’을 추천받고 설명을 듣고 있는 관람객들 /허정윤 기자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자체 야간거래

정규계좌로 추가 절차 없이 야간 거래

유럽 파생상품거래소와 연계해 운영되던 파생상품 야간 거래가 앞으로는 한국거래소 자체 운영으로 전환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생상품 자체 야간 거래가 오는 9일 개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거래소는 파생상품 정규 거래(오전 8시 45분~오후 3시 45분)는 자체 운영하고, 야간 거래는 유럽 파생상품

거래소인 유렉스(Eurex)와 연계해 운영해왔다.

유렉스 연계 야간 거래는 연계 계좌가 필요하고 거래 신청도 별도로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거래소 정규 계좌만 있으면 추가 절차 없이 야간에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거래소의 자체 야간 거래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진행된다.

/신하은 기자